

바다 “이젠 S.E.S 노래 당당히 듣는다”

‘토토가’ 이후 찾아온 변화

자아도취로 보일까, 촌스러울까 그동안 혼자 숨어서 노래 들어 1990년대 음악 주목 받아 기뻐 재결합? 좋은 일 계기가 됐으면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얻어준 자신의 노래에 “숨어서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심정인 걸까. S.E.S 출신 가수 바다는 평소 예전 멤버 시절 불렀던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혼자 듣곤 한다”고 말했다. 남들이 “자아도취로 오해할까, 촌스럽다고 놀릴까” 짐짓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어디서든 당당히 들을 수 있다”며 그는 웃었다.

여전한 동료 슈와 함께 그리고 유진 대신 후배인 소녀시대의 서현과 최근 S.E.S의 이름으로 나선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덕분이다. 1990년대 대중음악을 이끈 주역의 한 사람으로 그는 “데뷔 때 초심, 어려운 기분을 느꼈다”면서 김건모, 김현정, 김정남 등 “그 시절엔 이야기 많이 못 나눴던 분들과 가까워진 것”을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 그룹 재결합의 가능성을 봤다. 마침 슈의 ‘투혼’도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

었다. 바다는 “그렇지 않아도 슈가 ‘한 번 뭉쳐야지’ 해서 ‘음원이라도 내볼까’ 하는 참에 유진이 입신을 해 다음으로 미웠는데, ‘토토가’에 출연하게 됐다”면서 “S.E.S는 늘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다. 아무 명분 없이 음반을 내기보다 언젠가 좋은 일하는 계기를 만들어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만큼 많은 팬들이 여전히 S.E.S를 기억하고 있음을 바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는 ‘토토가’로 인해 1990년대 음악과 그 시절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상을 두고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주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다시 돌아온 패션처럼 1990년대 음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당대에 활동했던 가수로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좋은 곡은 시대와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토토가’의 의미를 설명한 바다는 여전히 “좋은 음악”을 위해 맹활약 중이다. 이제는 어엿한 뮤지컬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서고 있다. 현재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여주인공 스칼렛 오히라 역으로 출연 중이다. 바다는 당분간 뮤지컬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개인 음반은 내년 후반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김원겸 기자 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바다는 ‘토토가’에 출연한 가수들을 두고 “1990년대엔 모두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20년이 지나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토토가’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했다. 스포츠동아DB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민정, 4월 출산 예정… “가족 위해 마음 다잡아”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4월 부모가 된다. 19일 이민정 소속사 엠에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임신 27주차로 4월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산모의 안정을 위해 임신 사실에 대한 공개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이민정은 모델 출신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 김다희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상을 빌미로 협박당할 바 있다. 이민정은 소속사를 통해 “많은 고민 속에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전했다.

‘탈세 논란’ 장근석, 삼성동 200억원대 빌딩 구입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인 장근석(사진)이 서울 삼성동 일대에 시가 200억원대 빌딩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소속사 측에 따르면 장근석은 1월 초 대지면적 823㎡, 연면적 4221㎡로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금액 상당 부분을 용자받았다. 최근 불거진 세금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고,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권택 감독 신작 ‘화장’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

임권택 감독의 새 영화 ‘화장’이 2월5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6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비평가주간에 공식 초청됐다. 독일비평가협회와 하인리히 뵐 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비평가주간은 올해 처음 출범한다. 선정위원회는 “임권택 감독이 안전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모험을 감수한다. ‘노화’와 ‘미’에 대해 감동적이 되 감상적이지 않은 영화는 ‘죽음’이 최후라는 것의 개념을 거부한다”고 평가했다.

윤형주·강하늘, 영화 ‘세시봉’ CM송 함께 불러

가수 윤형주와 연기자 강하늘이 영화 ‘세시봉’의 CM송을 함께 불렀다. 19일 공개된 CM송은 윤형주가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한 곡으로 1972년 발표한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따온 노랫말과 감미로운 롱기타 선율이 담겼다. 포크송 버전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랩 버전 두 가지다. 윤형주와 극중 그를 연기한 강하늘은 CM송으로 완벽한 화음을 선보였다. 이번 이색 CM송은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연기자 최명길 모친상…21일 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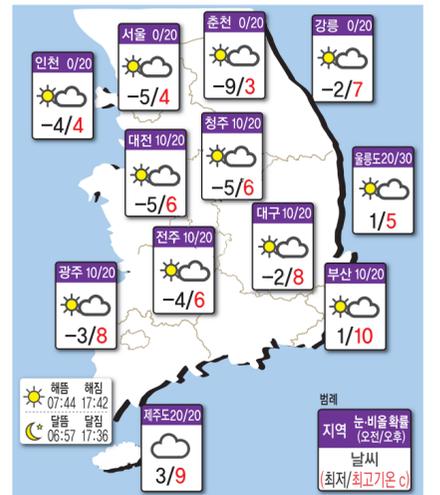
연기자 최명길이 19일 모친상을 당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명길의 모친은 지방으로 오랫동안 투병해오다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최명길은 현재 SBS 드라마 ‘편지’에 출연 중이고, 장례 일정을 마무리하고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현중, 여친 상해 혐의 벌금 400만원 약식 기소

가수 김현중(29)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김현중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가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것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사이 여자친구 최모 씨(29)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해 고소당했다.

오늘의 날씨

1월 20일 화요일 (음력 12월 1일)



이민호·정일우·김범 ‘꽃미남 회동 사진’

지난해 말 서울 한 카페에 모여 신인시절 ‘동고동락’ 우정 과시

이 정도면 ‘꽃미남 회동 사진’(?)이다. 연예계 절친으로 유명한 연기자 이민호, 정일우, 김범(왼쪽 사진부터)이 지난해 말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우애를 다졌다. 이들은 그동안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 어울린 것은 2010년 이민호의 팬미팅 이후 4년여 만이다.

19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에도 2주간격으로 해외 활동 등 일정이 없는 날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와 정일우는 1987년 동갑내기로 중고교 시절부터 알고지내 온 친구

다. 정일우가 최근 한 방송에서 “민호와 는 매년 약속을 잡아왔다 당일엔 다른 일정이 생기거나 귀찮아 다음에 만나자”고 밝힐 정도로 편한 친구 사이다. 정일우와 김범은 2006년 MBC 시트콤 ‘거침 없이 하이킥’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정일우를 매개 삼아 세 사람이 친구가 됐다. 김범은 이민호와 정일우보다 두 살 어리지만, 성격과 생각이 잘 맞아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힘든 신인 시절을 보내고 의지한 세 사람이 현재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민호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어도 영화 시사회 등에 정일우와 김범을 절대 빼놓지 않고 초대한다”면서 “각종 인터뷰나 방송에서도 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정도로 우애가 깊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진짜사나이’ 위기 때마다 여군 특집?

남성 출연진 에피소드 한계 봉착 다시 여군 특집으로 돌파구 마련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사나이’가 25일 본격적인 여군 특집 2편을 방송한다. 앞서 18일 통해 ‘맛보기’ 영상을 공개한 ‘진짜사나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2편은 18일 연기자 김지영·강예원·박하선·이다희와 개그우먼 안영미, 방송인 이지애,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와 에이핑크 윤보미 등 ‘훈련병’들의 모습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은 1편 때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동시에 그 이면의 명암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2013년 4월 첫 방송한 ‘진짜사나이’는 김수로·박형식·샘 해밍턴 등 남자 연예인들의 군 체형 현장을 실감나게 담아내 인기를 모았다. 고된 훈련에 힘입어하는 한편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기는 이들의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기며 재미를 줬다. 하지만 출연진이 정기적으로 부대를 이동

하지만 방송 1년을 지나면서 군 부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풀어낼 수 있는 에피소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작진은 여군 특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며 다행히 숨을 돌리기도 했다. 라미란·겅스테이 헤리 등 활약으로 여군 특집 1편(사진)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제작진은 기세를 이어 프로그램의 원래 기획도였던 남자 출연자에게로 관심을 다시 돌리려고 신병 특집을 마련하며 새로운 멤버 3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여군 특집의 인기를 이어가기에 부족했다. 결국 제작진은 또 다시 여군 특집이라는 구성을 선택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방송가에서는 여군 특집 2편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한 관계자는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군 부대의 제한적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의 고정적인 멤버 위주도 포맷을 유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단일한 콘셉트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꾸며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7



‘감독 변신’ 러셀 크로 첫 내한

“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을 함께 하는 아버지일 바란다. 늘 기도한다.” 할리우드 톱스타 러셀 크로(사진)는 부성애를 그린 주연작이자 첫 연출 영화인 ‘워터 디바이너’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 두 아들의 삶이 온전하길 바라고 창의적으로 자라길 원한다”고도 했다.

‘글래디에이터’,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러셀 크로가 28일 개봉하는 ‘워터 디바이너’를 알리기 위해 처음 한국을 찾았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특유의 친근함으로 여러 질문에 답했다. 매너 역시 돋보였다.

‘워터 디바이너’는 1차 대전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한 호주인들의 이야기. 자신의 고향인 호주의 아픈 역사를 스크린으로 옮긴 러셀 크로는 전쟁으로 세 명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연기했다.

새 영화를 내놓는 배우나 감독이 대개 홍보에 집중하지만 그는 달랐다. “호주와 터키 등 여러 나라 아버지들의 정서가 섞여 있어 세계 관객이 공감할지 걱정”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호주가 영국 식민지로 참전했듯 한국도 여러 이유로 2차 대전에 참전해 상실을 겪지 않았느냐”고 질문도 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로 아카데미 남

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는 리들리 스콧 등 세계적인 연출자와 호흡하며 여러 히트작을 내놨다. 성공 비결은 “담살이 돈을 정도로 감독적인 이야기”를 택해온 활동 방식이었다.

다양한 관심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음악에서부터 럭비까지 자신의 여러 관심사를 밝혔다. 특히 유년기 럭비선수로 활동한 그는 현재 호주 프로구단 매디토스의 구단주다. “얼마 전 우리 럭비팀이 우승했다”고 공개한 그는 “나는 지금 1위”라고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해리 기자 giff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y